

# '치유농업'으로 국민건강 지킨다

### 농진청, 신성장 동력 창출 4대 추진방향 발표 과학적 효과 검증·산업화 기술 개발 서비스 모델 발굴·전문 인력 양성 '초점'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법' 제정에 따라 국민 건강 증진과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4대 중점 추진 방향을 26일 발표했다. 치유농업은 국민 건강 회복과 유지·증진을 위해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거나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농진청은 △과학적 효과 검증 △산업화 기술 개발 △서비스 모델 발굴 △전문 인력 양성과 정보망 구축에 초점을 맞춰 관련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과학적 효과 검증으로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한다. 구체적으로 식물·동물·곤충 등의 농업 소재와 농촌자원이 증진질환과 만성 질환, 스트레스에 미치는 임상·비임상적 효과를 추가 검증해

치유농업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인다. 또한, 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2022년까지 치유자원 40종을 발굴하고,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18종을 개발한다.

산업화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는 자원 중심의 치유농업 체험 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농장형 프로그램 개발 기준과 지침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서비스 기준과 관리 체계를 구축해 농장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노인·장애인의 원활한 농업



활동을 위한 전용 휠체어와 농작업 보조 도구 개발 등 실용화 연구도

추진한다. 농진청은 치유농업 서비스 모델을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기관, 복지기관과 협업체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 '농업·복지 융합형 사업'을 추진하고 성공사례를 발굴함으로써 고객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치유농업 서비스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 밖에 농진청은 치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국가 자적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고 고객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설계,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 치유농업서비스 활용 가능 시설은 5,700여 곳에 이른다. 아울러 치유농업 정보망을 구축해 관련 정보와 연구성과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황정환 원장은 "치유농업은 국민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유지·향상시키고, 관련 산업을 창출해 국가 경제 나아가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치유농업법 제정으로 법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관련 연구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산림청 사업에 조경업체 입찰 참가 허용 '명문화'

### 도시숲법 국회 통과... 전건협 전북도회 대응 '결실'

지난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산림청 공사에 조경관련 전문건설업종인 조경식재·조경시설물공사업체들의 입찰 기회가 법적으로 명확히 부여됐다.



김태경 회장

지난 3월 1일 산림청이 전국 지자체 및 교육청에 발송한 공문에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숲이나 쾌적한 도시를 위한 바람숲,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명상숲 등 지난해까지 조경식재공사업 중심으로 발주되던 조경공사 산림사업으로 예산 신청 및 보조금으로 교부된 사업으로 조경식재업 또는 조경공사업은 시공 시 입찰 참가자격에 미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어, 해당 공문 이후 발주분부터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체의 참여가 제한되고 산림법인만 입찰이 가능해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사를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림설비공사, 환경시설공사 등과 함께 건설공사로 정의하면서, 구체적으로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조경공사)와 조경수목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조경식재공사) 등을 주된 업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명기하고 있으며, 2009년 법제처는 산림지원법의 가로수 및 도시림조성·관리사업에 대해 '산림조합과 조경식재공사업 등의 업무영역이 겹치는 점을 고려해 해당사업에 조경식재공사업자도 참여 할 수 있다'라며 업무 갈등을 일단락 지은 바 있다.

전건협 전북도회는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 등으로 업무 담당자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최근 입찰공고된 해당 사업에 조경식재공사업자의 입찰참가를 가능토록 했으며, 향후 시행되는 사업에서도 해당 전문건설업체의 참여를 약속 받았다.

또한 전건협 전북도회는 조경업계의 도시숲 사업 참여를 위해 중앙회 및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그 결과, 국회에 계류중이던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된 도시숲법 제정안(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2019. 7. 30발의)이 수정자결해 본회의를 통과(2020.5.20)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당초 법안에는 시공자격 규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지만, 도시숲 시공과 관련한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 의견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윤상 기자

## 농어촌공 새만금사업단 이소열 선임 단장 취임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선임 이소열 단장이 제18대 새만금사업단장으로 취임했다.

이소열 단장은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사현장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또한 친환경적인 세계 최고의 새만금 개발 및 청명한 조지문화 정착, 소문과 배려가 넘치는 행복한 직장 조성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열 단장은 전주 출신으로 전북대학교 농공학과, 전북대학교 대학원(농공학 석사, 토목공학 박사)을 졸업하였고 1992년 공사에 입사해 전북지역본부 고창지사장 및 새만금사업단 공무부장, 군산지사 지역개발부장 등을 역임했다. /김제=레노데 기자

## 중기 15.3% '인력 과다' · 7.7% '인력 부족'

### 중기중앙회 '코로나19 여파 인력수급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00개 중소기업(제조업 135개, 비제조업 165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인력수급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인력의 15.3%가 자사의 고용인력이 과다하다고 보고있는 반면 부족하다는 중소기업은 7.7%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향후 고용시장이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고용인력이 과다'하다고 응답한 기업 10곳 중 3곳이 코로나 19 발생이후 현재까지 이미 평균 10.2명을 감축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제조업은 평균 20.3명, 비제조업은 평균 7.2명을 각각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인력이 과다한 이유로는 '코로나 19로 인한 일감축'이 95.7%로 절

대적인 원인으로 응답됐고, 계절적인 요인으로 단기일감 축소 28.3%, 수년간 회사성장 정체 17.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중 인력감축을 계획하는 이유로는 '인건비 등 운영자금 부족'이 61.5%로 가장 많이 응답해 인건비 조달의 어려움을 꼽았고, '경기악화 예상'에 따른 선택적 대응 26.9%, '매출감소' 7.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중 추가 고용계획에 대해서는 인력이 부족하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업체의 18.5%만이 급변 중 고용계획이 있다고 응답했고, 평균 고용인원은 3.3명으로 조사됐다.

고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중소기업 고용시 보조금지원'이라는 응답이 70.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우대지원책 확대 및 사회적 인식개선책' 57.0%, '최저임금 인상 억제 및 인건규제' 57.0% 등에 따른 차등 적용 51.7%, '주52시간 보완입법 마련 등 근로시간 유연화' 41.0% 순으로 응답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상황 악화로 대다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미 인력을 감축했거나, 앞으로 감축해야 하는 등 인력운용이 어려운 때 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와 같은 고용유지 지원정책과 함께 주 52시간 보완입법과 최근 경제상황 및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최저임금 결정 등 합리적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고용 및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윤상 기자

## 새만금개발공사 올 상반기 11명 채용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김광문, 이하 공사)가 오는 6월 9일까지 상반기 채용 접수를 진행한다.

모집 분야별 인원은 변호사 4명, 사업개발·산업안전 분야 경력직 4명, 체험형 청년인턴 6명으로 총 11명이다. 공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7월 22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를 거쳐 8월 1일부터 정식 근무하게 된다.

김광문 사장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신속한 새만금 사업을 위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새로운 창업교육의 패러다임 시작'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체험점포 '꿈이룸 전주점' 입소식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지원진흥공단이 주관하고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이 함께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 26일,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체험점포 꿈이룸 전주점에서 입소식을 개최했다.

입소식에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학교장인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비롯해 내외빈과 점포체험 관계자, 그리고 체험점포 꿈이룸의 주

인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전북 11기 교육생 9명이 참석해 16주간 진행되는 점포체험 대장정의 막을 열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가 준비된 창업,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초, 전문교육부터 창업전문가와 1:1 멘토링, 점포체험, 자금지원 등 원스톱(One-Stop)으로 진행되는 체계적인 창업 지원사업이다.

이번 체험점포 꿈이룸 전주점에 입소하는 사람학교 교육생은 9명으로 컨텐트트브먼트, 케이티링, 식용곤충을 활용한 식품개발, 지역 특산물 편집술 등 개성이 넘치는 아이템들을 통해 9월 초까지 16주간 창업에 필요한 실천역량을 다져나갈 예정이다.

경진원 조지훈 원장은 "막연한 결정으로 인한 창업은 무방비상태이자 무분별한 창업"이라며,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긴 여정이 옳고 그름의 갈림길에 선 예비창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경로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LX, 공간정보 정책전략분야 연구원 내달 8일까지 공모

LX공간정보연구원(원장 김형곤)이 공간정보의 싱크탱크가 될 연구원 및 전문경력직을 채용한다.

연구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연구원 공개채용'을 공고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공모 인원은 총 6명이며, 분야는 '공간정보 정책과 전략', '지적 정책과 제도', '공간데이터 분석활용' 등이다.

세부 내용 및 신청서류는 국토정보공사 홈페이지 또는 LX공간정보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이 가능하다. 제출기한은 오는 6월 8일 까지다. /김윤상 기자

## 국민연금 1355 콜센터, 16년 연속 '우수콜센터' 선정

### 고객 중심 서비스 '인정'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국민연금 1355 콜센터'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한 '2020년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조사에서 16년 연속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콜센터 콜센터는 고객 문의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국민연금 제도를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고객 중심의 업무처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공단은 전국의 5개 지역(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 국민연금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콜센터 직원 387명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품질의 상담서비스를 안정적

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복리후생제도 강화, 모성보호제도의 활성화, 개인별 평가제, ICT기반 서비스 개발을 통한 업무경감 지원 등 상담인력의 일·생활 균형 실현을 통한 고용의 질 개선이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특히 올해는 중국 등 해외입국자 대상으로 일일 자가점검 및 증상여부를 모니터링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 외국인과외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전문 통역 인력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통해 총 2만 3천여 명에게 자가점검을 돌려했고 유증상자 77명을 발견해 조기치료 등을 안내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단은 하반기에 상담에 불편을 겪는 청·년 장애인에 대해 전문 수

화 상담사를 채용하고 수화 상담 전용 시스템을 마련해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며, '보이는 ARS' 시스템에 실증된 치매노인을 표출해 실종자가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산업표준(KS) 서비스 인증 기준에 맞춰 품질경영관리, 서비스 운영체제, 서비스운영관리, 인적자원관리, 시설환경·안전관리 등 5개 항목에 대해 콜센터 서비스 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16년 연속 우수콜센터 선정"은 공단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더욱 신뢰 받는 기관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가을 오기 전 건강검진 해'

### 건협 전북지부 장은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코로나19·겨울철 독감 예방 위해 조기진단 받아'



장은영 전문의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이하 건협 전북지부)는 최근 전문가들이 올 가을·겨울 코로나19 2차 유행을 예견하는 가운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미리 받아볼 것을 26일 권장했다.

코로나19는 65세 이상 노령자, 기저질환자에게 더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만성질환자는 면역력이 약해져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기타 감염질환에 취약할 수 있다.

건협 전북지부 장은영 가정의학과 전문의(사진)는 "향후 다시 유행할 수 있는 코로나19 및 겨울철 대표 감염질환인 독감(인플루엔

자)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가을이 오기 전 건강검진을 받아 조기진단을 통해 그동안 몰랐던 질환이 발견된다면 적극적으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소 개인위생과 함께 금연, 금주,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 적절한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을 통한 면역력강화에 노력해야 하고, 고위험군에 있어서는 폐렴구균 예방접종과 10월 전후 독감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건강검진전문기관으로 전국 16개 건강검진센터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 국가암검진을 비롯한 종합건강검진, 맞춤형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필요시 건강생활상담실을 연계해 생활 속 질환 관리 및 식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영양사의 맞춤형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